

베트남 국민 화가 부 상 파이 만난다

프랑스에 대한 레지스탕스 활동...크리스티 경매 등서 인기 작고 30주기 기념전...26일까지 나인갤러리 유희 등 40여점

몇년 사이 광주에서도 베트남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심심찮게 있다. 광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내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그룹전을 열기도 했다.

‘베트남 국민 작가’로 불리는 부 상 파이(Bui Xuan Phai·1920~1988)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 예술의 거리 옛 ‘갤러리 봄’ 자리에 새롭게 등지를 뜬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가 첫번째 전시로 ‘부 상 파이’ 작고 30주년 기념전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자화상’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그의 유희 수채, 펜화, 드로잉 작품 등 40여점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한 감흥을 준다.

평생 지난 속에서 살아온 그는 프랑스에 대항하며 레지스탕스로 활동했고 1984년까지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시 금지령을 받기도 했다. 죽기 4년전에야 첫 개인전을 열었던 그의 작품은 작고 후 전 세계 컬렉터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고가로 낙찰되고 있다.

그의 작품의 주 배경은 하노이 풍경이다. 매일 오후 화색 재킷을 입고 하노이 거리를 산책하던 화가’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거리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려나갔다. 전시장에서 만난 하노이 풍경들은 소박하면서도 애뜻하다. 같

색이 주조를 이루는 유희로 묘사한 거리는 우수에 젖은 듯도 하다.

눈에 띄는 건 펜이나 연필 등으로 쓱쓱 그려나간 드로잉 작품들로, 단순한 선으로 표현된 인물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작가로서의 고집이 읽히는 자화상이 인상적이다.

캔버스 등 값비싼 도구들을 구입할 수 없었던 그는 신문용지, 자녀들의 교과서 종이, 작은 담뱃갑과 성냥갑, 판지 상자 등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전시작은 한국·베트남 교류에 앞장 서온



‘하노이 거리’

한·베미술교류협회장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25년간 베트남 방문 때마다 작품에 관심을 갖고 유족, 화랑, 미술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모은 작품들이다. 3점은 베트남에서 대여해왔다.

전시를 기획한 양승찬 관장은 “어떤 욕심도 없이 ‘예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 그의 삶이 존경스럽다”며 “작품 속에 바로 그의 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첫 해외 아트페어 참여를 계기로 최근 몇년간 갤러리 전시보다 해외 아트페어 참여에 몰두했던 나인갤러

리는 이번 갤러리 이전을 계기로 올해부터 해외 작가들 광주에 소개하는 전시회를 중심으로 기획전을 열 예정이다. 또 2월에는 김유미·최향 등 지역 작가들과 미국 팝스프링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등 해외 아트페어에도 꾸준히 참여한다.

양 관장은 또 예술의 거리 갤러리와 골동품상 6곳과 협동조합을 결성, 빠르면 4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경매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아버지 양수아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맞은 2020년에는 회고전도 준비하고 있다. 문의 062-232-232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양파꽃·할미꽃·백년초...1월에 핀 꽃

김옥순전 31일까지 LH휴랑갤러리

화폭에 화사한 꽃들이 한가득이다. 은은한 색감이 번지며 아련한 느낌을 전하는 수채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수채화 작가 김옥순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 본부 1층 LH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꽃에, 색을 입히다’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꽃들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의 주소재는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한 양파꽃들이다. 김 작가는 양파꽃을 그릴 때마다 행복을 느끼고 생명의 위대함에 감동한다고 말한다. 양파꽃 이외에도 어릴 적 흔히 보았던 할미꽃, 백년초, 모란, 호박



‘물들이다’

꽃 등 다양한 꽃들을 통해 잊고 지냈던 소녀적 감성도 떠올리게 한다.

김 작가는 조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물빛수채화회, 한국여류수채화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광주시미술대전 추천작가다.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전라도 천년전 새 작품 전시

‘전라도 무장현도’ 등 2월 10일까지...홈피도 새단장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현재 개최 중인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특별전 ‘전라천년-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2월10일까지)에 새로운 전시품을 선보이고, 홈페이지도 새단장 하는 등 새해를 맞아 시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먼저 19세기 전라도 무장현의 모습을 그린 회화식 지도인 ‘전라도 무장현도’(국립중앙박물관)를 새로 전시한다. 또한 성 안에 핀 붉은 꽃과 앞바다의 고깃배까지 아름답게 묘사한 지도를 영상과 함께 선보이며 ‘화포식언해’와 ‘선문엽송집’ 등을 교제 전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조국사 지눌(1158~1219)과 수선사(修善社)에 대해 기록한 고려시대 문서 ‘수선사형지기’(修善社形止記·송광사 소장)는 후반 ‘수선사중창기’(修善社重創記) 부분으로 장면을 교체해 전시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중 ‘선조실록’(국립고궁박물관 소장·국보 제151-3호)을 새로 펼치고, 이당 김은호(1892-1979)가 그린 동학(東學) 교주의 초상화도 교체한다.

한편 박물관은 최근 PC, 모바일 등 사용자가 접속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번 개편으로 외국어(영문·중문·일문)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를 포함해 메뉴구조와 디자인이 바뀌었다. 메인 페



‘전라도 무장현도’

이지는 박물관 전시 소식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방문자들이 주로 찾는 이용시간, 교육, 문화행사, 새소식 등을 배치해 유용성을 높였다. 특히 국립광주박물관 소장품 중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자기’와 지역의 주요 의제인 ‘아시아 문화’를 융합한 ‘아시아 도자 문화 실크로드 거점’란도 마련했다.

이밖에 VR·파노라마 기술을 이용한 박물관 ‘사이버 투어’도 신설했으며 교육, 행사 등 통합 예약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문의 062-570-701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해를 여는 ‘실존주의’ 철학 무료 강좌

은암미술관 오늘~2월 25일...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7일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오후 7시) ‘새해를 여는 철학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실존주의’를 주제로 7강으로 구성되며, 은암미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성진기(사진)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1강은 ‘철학, 인간의 고귀한 충동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시작되며 2강부터 6강까지는 니체, 사르트르 등 19~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사유가 펼쳐진다. 7강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에 대해서 다룬다.

구체적 강의 내용은 ‘내가 살지 않는 이성의 궁전을 어이할까’(키에르케고르의 신 앞에 홀로 선 인간), ‘이것이 삶이란가. 좋다. 다시 한 번!’(니체의 자기를 초



두이) 등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철학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학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이미지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극하는 인간),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현존재’(하이데거의 본래적 자기 상실), ‘실존해명의 핵심으로서 한계상황’(아스퍼스의 교섭하는 인간), ‘프래그머티즘’(퍼스·제임스·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 스크린 생중계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베토벤 ‘합창’ 등 연주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를 오는 9일 광주에서 스크린으로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작은 스크린’ 기획으로 이날 오후 8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예술의전당 ‘2019 신년음악회’를 1시간 40분 동안 생중계한다.

먼저 여자의 지휘로 KBS교향악단이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하며 1부의 문을 연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사진)과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35번 제1악장’을 협연한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됐던 소년 가수 오연준이 cbbc소년소녀합창단, 와글와글합창단,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함께 윤국영의 ‘반달’, 홍난파의 ‘고향의 봄’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2부는 열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시



단조 작품 125 합창’ 중 4악장을 소프라노 서선영·메조소프라노 백재은·테너 박지민·베이스 전승현과 국립합창단·그란데오페라합창단의 화음으로 울릴 예정이다. 선작은 무료 관람(715석). 예약 062-670-79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작하고 가곡 ‘고향의 노래’, ‘보리밭’, ‘그리운 금강산’ 등을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팝페라 가수 명성화와 가수 김충성의 목소리로 듣는다.

마지막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중 4악장을 소프라노 서선영·메조소프라노 백재은·테너 박지민·베이스 전승현과 국립합창단·그란데오페라합창단의 화음으로 울릴 예정이다. 선작은 무료 관람(715석). 예약 062-670-7934.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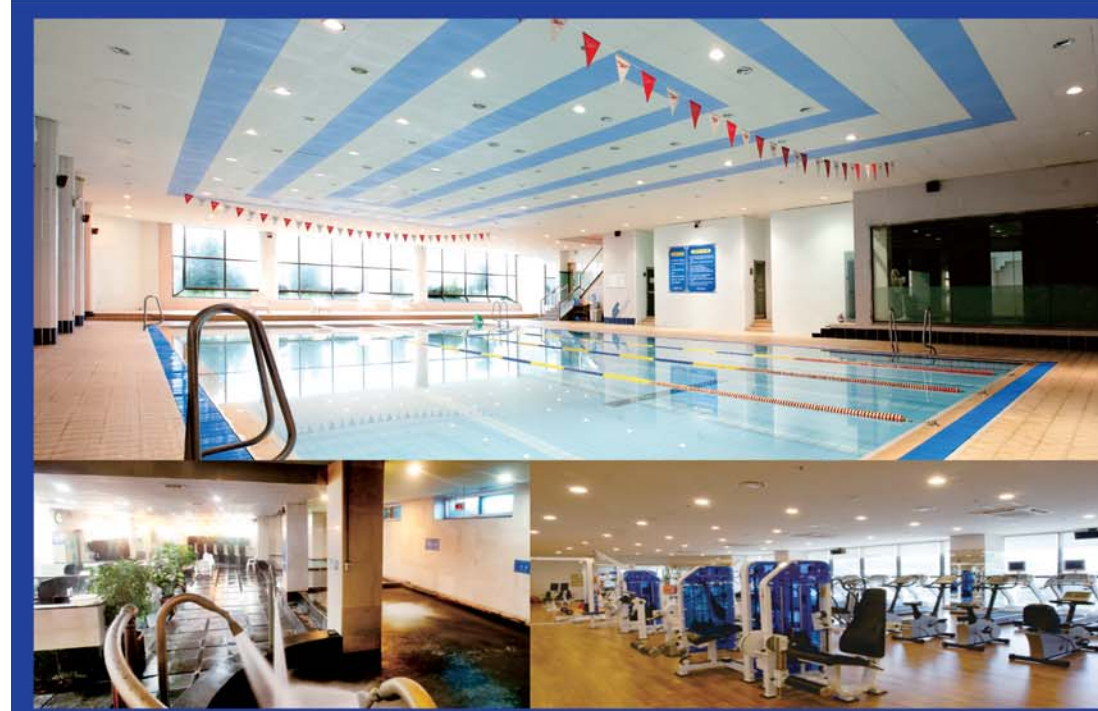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구 분	연회비(VAT포함)	비 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